

역대 문체부 장관 모여 미래 문화전략 논의

- 1. 4. ‘역대 문체부 장관 간담회’ 7년 만에 개최
- 유인촌 장관, “역대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목), 문화예술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을 초청해 미래 문화전략을 논의했다. 역대 문체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6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섭(’93년 2월~’94년 12월), ▲김영수(’95년 12월~’97년 3월), ▲신낙균(’98년 3월~’99년 5월) ▲남궁진(’01년 9월~’02년 7월), ▲김성재(’02년 7월~’03년 2월), ▲김종민(’07년 5월~’08년 2월), ▲정병국(’11년 1월~’11년 9월), ▲최광식(’11년 9월~’13년 3월), ▲박양우(’19년 4월~’21년 2월), ▲황희(’21년 2월~’22년 5월)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괄호 안은 재임 기간 표시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문체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역대 장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은 “케이(K)-컬처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새로운 힘이 되었다. 드라마, 영화, 클래식, 게임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케이(K)-컬처가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대 장관들의 헌신과 노고가 초석이 되었기에 실현할 수 있었던 성과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역대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역대 장관들의 고견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211)
		담당자	사무관	이화영 (044-203-2218)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대한민국
지식브리핑

